—산책을 듣는 시간 운영자, 정수지 언니에게

언니, 안녕? 난 성사초등학교 6학년 이예빈이야.
요즘 장마철이여서 비가 많이 오네. 오늘도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를 몇 번 반복했는지 몰라.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우리의 불쾌지수가 올라가잖아. 날씨도 여름이면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자기 멋대로 비를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변덕을 부리는 것일 수도 있어. 요즘엔 변덕이 심하네. 언니가 운영하는 '산책을 듣는 시간'은 잘되고 있어? 비가 와서 사람들이 신청을 잘 안 할 수도 있겠다. 난 비 오는 날이 좋아. 비 오는 풍경, 빗소리, 물 웅덩이...... 이 모든 것들이 좋아. 이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빗소리야. 밤에 잘 때 침대에 누워서 듣는 빗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줘. 어른들께서 비 오는 날을 좋아하면 어른이 된 거라고 하시는데 어른이 된다는 건 나이와 몸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. 그런데 마음보다 몸이 더 빨리 크는 것 같아. 난 아직 어른이 되려면 7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동안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키워야겠어. 언니는 아직 어른이 아니지만 언니의 단단함은 어른 못지 않은 것 같아. 언니의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엄마는 바다 너머로 떠나보낸 슬픔을 견뎌냈잖아. 게다가 이미 오래전부터 아빠께선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도 아픔을 견뎌낸 게 대단해. 아마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인 한민오빠와 아픔을 나누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? '행복을 함께하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하면 반이 된다.'라는 말이 맞나봐. 한민오빠는 언니에게 없어선 안되는 존재인 것 같아. 나에게 가족을 잃는 상황이 온다면 난 견뎌내지 못 할 거야.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아주 큰 슬픔을 안는 건데 난 내게 안긴 슬픔을 잘 다독이지 못하고 무작정 떼어내려고만 할지도 몰라. 하지만 언니는 슬픔을 잘 다독이고 함께 나누었지.

언니가 지금 끼고 있는 헤드폰은 노래를 듣기 위해 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난 알아. 사람들은 언니가 헤드폰을 끼고 있으니 당연히 주위에서 나는 소리를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끼고 있는 거잖아. 언니가 청각장애인인 것은 숨길 필요가 없어. 내가 언니를 알기 전에 난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지 못하니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어. 하지만 언니가 불편함 대신 고요함을 느끼는 것을 보며 언니가 건청인을 보며 '너무 시끄럽겠다.'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. 난 언니가 청각장애인이니 수어로 대화할 줄 알았어. 그런데 언니는 수어를 안 배우고 구어를 배워서 대화하네. 난 요즘 경기 꿈의 학교 수어 런닝맨 수업을 들으며 수어를 배워. 수어는 언니와 같은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배우게 되었어. 수어를 배우는 건 재미

문화체육관광부
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
문화체육관광부
국립한글박물관